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20 · 8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이종승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말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말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말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말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말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0 / 8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달마다 새롭게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집착을 벗어나려면
일기일회	11	용서는 가장 큰 수행
달마다 새롭게	17	달마다 새롭게
법정 스님의 숨결	33	죽음은 새로운 시작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	37	관음심 관음행
법정 스님의 산중 편지	40	살아 있음의 의미
법정 마음의 온도	42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 생각하라
법정 스님의 애송 선시	44	고향에 돌아와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5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20년 8월 1일 발행 / 통권 306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광래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집착을 벗어나려면

글 • 법 정(法 頂)

1

어제는 비가 내린 끝에 활짝 개어 서쪽 바닷가 샌타모니카 비치에 나가 수평선으로 해가 잠기는 일몰을 지켜 보았다. 일몰을 보고 있으면 하루의 끝을 실감하는 한편, 나에게 허락된 삶의 그 하루도 끝이 났구나 하는 허무감이 든다.

저녁노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들 삶의 끝도 것처럼 담담하고 그윽할 수 있을까 묻고 싶어진다.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꽃이 피었던 그 가지에서 무너져 내리듯이, 삶의 가지에서 미련 없이 떠나 대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불교를 믿는다는 한 청년이 불쑥

이런 질문을 했다.

“불교 경전 가운데 깨달음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그 젊은이는 자기 자신이 불교 경전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모양이다. 있었다 하더라도 건성으로 지나쳤을 것이다. 그 젊은이뿐 아니라 대개의 불교도들은 다른 종교의 신자들에 비해 경전에 대한 이해나 탐구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한 그 뜻을 잘못 받아들이, 부처님의 교법을 아예 무시한 채 불교를 이해하려는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중아함 염처경(中阿含念處經)〉에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다.

“중생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걱정과 두려움에서 건지며, 고뇌와 슬픔을 없애고 바른 법을 얻게 하는 뛰어난 길이 있다. 그것은 곧 사념처법(四念處法)이다. 과거 모든 여래(如來)도 이 법에 의해 최상의 열반을 얻었고, 현재와 미래의 여래도 이 법으로 열반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열반이란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니다. 온갖 번뇌와 갈등이 사라져 평온하고 청정하게 된 깨달음의 경지를 가리킨 말이다. 니르바나(nirvana)란 번뇌의 불꽃이 꺼져 버린 상태, 그래서 적멸(寂滅)이라고도 번역한다.

그 열반(곧 깨달음)에 이르려면 다음 네 가지, 즉 몸(身)과 느낌(受)과 마음(心)과 현상(法)에 대해서 똑바로 관찰하고 끊임없이 꾸준히 정진하여

바른 생각과 지혜로써 세상의 허욕과 번뇌를 끊어버려야 한다.

관찰이란 안으로 면밀히 살피는 일이다. 선(禪)은 물론 인도에서 싹텄지만 그 발달은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중국 불교인 썸이다. 그 이전에는 안으로 면밀히 살피는 관법(觀法)이 수행의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닦으신 것도 이 관법이었지 중국의 선불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2

그럼 다시 경전으로 들어가 그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어떻게 몸을 바르게 관찰할 것인가. 숲속이나 나무 밑 혹은 고요한 곳에서 몸을 똑바로 하고 앉아 오로지 일념으로 먼저 호흡을 조절한다. 길게 들이쉬고 내실 때에는 그 길다는 것을 알고, 짧게 들이쉬고 내

실 때에는 짧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온몸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 생각을 다른 데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은 우리가 지금 살아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순간순간의 호흡에 대한 관찰은 자기 삶의 확인이다.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못하거나 내쉬었다가 들이쉬지 못하면 우리 삶은 멈추고 만다. 그걸 죽음이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고 고마운 것인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삶과 죽음이 바로 이 호흡 사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내 몸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일에 생각을 기울여 다른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생각을 호흡에 모아 흠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이란 내뉘는 말과 같아서 한군데 매어두지 않으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흠어진다. 흠어지려는 생각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기 쉬운 방법이 자신의 호흡을 면밀히 살피는 일이다.

경전은 계속된다.

“다음으로 이 몸을 관찰하라. 몸이 어디 갈 때에는 가는 줄 알고 머물 때에는 머무는 줄 알며, 앉고 누울 때에는 앉고 누웠다는 상태를 바로 보라. 그래서 생각이 그 몸의 동작 밖으로 흠어지지 않게 하라. 그 어떤 사물에도 생각을 팔지 말고 오로지 이 몸 관찰하는 데에만 머물게 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 따로 생각 따로 흠어지면 일에 능률도 안 오르고 일하는 즐거움도 없다. 일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면 그 일을 통해 일의 기쁨만이 아니라 삶의 잔잔한 기쁨과 함께 마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정서가 불안정하다는 말은 자기가 하는 일과 생각이 하나가 되지 못하

고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상태임을 드러낸 소식이다.

일을 할 때는 내 온몸과 마음이 그 일 자체가 되어야 한다.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좌선을 할 때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자신이 하는 일에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일 뒤에 가려진 세계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일을 통해서 이치를 터득한다는 뜻이다.

다시 경전의 말씀.

“이와 같이 몸의 굴신과 동작과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한 생각도 흩어지지 않게 되면, 몸에 대한 형상이 눈앞에 드러나 바른 지혜가 나타나며, 이 세상 어떤 환경에도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지혜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들 마음의 빛이다. 이 마음의 빛은

생각을 한곳에 기울여 몰입하고 집중함으로써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선정(禪定)과 지혜의 상관관계는 물과 그림자의 관계와 같다. 물이 일렁일 때는 거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물결이 잔잔히 가라앉을 때만 그 위에 둘레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즉, 지혜의 달이 비친다.

하루 한때라도 우리는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자세히 살피고, 몸이 움직이고 멎을 때 몸에 그림자 따르듯이 생각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훈련을 익혀야 한다. 정진이란 잡념을 떨쳐버리고 일념으로 꾸준히 나아감이다. 이런 정진 없이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도 알짜로 산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집착을 혼동하고 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구다. 이 이기적인 욕구로써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참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서로가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원천적으로 볼 때는 줄수록 더욱 맑고 투명하고 넉넉해지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나 받으려고만 하면 더욱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구가 따르고 갈증 상태를 면할 길이 없다.

주는 사랑에는 집착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꾸 받기만을 원하면 사람이 무더지고 오만해지고 불만과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 괴로움의 뿌리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대개 집착이 도사리고 있다.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몸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전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몸을 관찰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 육체가 애초에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실대로 관찰해보라. 이 몸은 지_地·수_水·화_火·풍_風 네 가지 요소가 한데 어울려 된 것임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솜씨 좋은 백정이 소를 잡아 사지를 떼어 펼쳐놓듯이, 이 몸을 네 요소로 갈라 눈앞에 드러내 놓아보라.”

좀 끔찍한 표현이지만,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낱낱이 해체해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고 고집하거나 집착할 게 없어진다. ‘나’의 실체란 어디에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온_{五蘊}(다섯 가지 뭉치), 즉 물질적인 요소인 이 육신(이를 색_色이라고 한다)과 정신작용(이를 수_受·상_想·행_行·의_議로 나눈다)으로 회합해 있는 것을 우리는 ‘나’라고 고집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분석적이다. 세계와 인생에 대한 지적 작업은 주로 관찰과 분석

이었다. 투철한 관찰로써 있는 그대로 보았고, 치밀한 분석으로써 대상을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누어 그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는 아주 이성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들뜨게 하거나 흥분시키지 않고 차근차근 그 원천을 살펴 잘못된 이해를 돌이켜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찾도록 한다.

4

몸에 대한 관찰은 계속된다.

“숲속에 버려진 시체가 하루 이틀 지나면 부어터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내 이 몸도 언젠가는 그와 같이 되고 말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 모양이 눈앞에 역력하면 모든 허망한 대상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숲속에 버려진 시체의 해골,

한두 해 지나 무더기로 쌓인 해골, 다 삭아 부스러진 해골의 잔해를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을 주시하라. 내 몸도 마침내는 저렇게 되고 말 것이라고 관찰한다면, 세상의 온갖 집착을 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몸에 대해서 이와 같이 관찰을 해야 한다.”

병원에서 우리 몸의 일부를 찍은 엑스선 사진을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살과 피부는 어디로 가고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기분 나쁜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진은 도무지 내 몸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사실이 지금의 내 몸인 것을. 이런 뼈가 잘났다고 우쭐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혈뜬고 싸운다면 가소로운 일이 아닌가.

이런 뼈가 다름 아닌 바로 내 자

신이라고 생각을 돌아킨다면 집착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기분 나쁜 글을 읽어 마음이 언짢겠지만, 우리가 피차에 이런 인간의 실상을 알았다면 그런 빠로 돌아가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이루도록 생각을 거듭거듭 돌이켜야 한다.

휴정(休靜) 선사가 죽은 스님을 두고

옴은 글에 이런 것이 있다.

올 때는 흰구름 더불어 왔고
갈 때는 밝은 달 따라서 갔네
오고 가는 그 주인은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고. 1988

•발췌: 「텅 빈 충만」

법정 스님 저서 전자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해를 맞아, 스님의 저서를 디지털화 보존하는 의미로 전자책으로 작업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 입적 후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책을 구하고자 중고서점을 찾거나, 본회 사무국에 도서 판매 및 재출간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아 곤혹스럽기도 했습니다.

2010년 3월 17일, 법정 스님 유언 발표 당시 “스님의 글을 읽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언제든지 스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와 더불어 스님의 저서를 디지털 자료화하여 보존 관리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서적은 <무소유>,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를 비롯하여 샐터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총 13권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저서를 읽고자 하는 사람은 본회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 후원회원(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지 않은 현재후원중인 회원을 뜻함)이 전자책을 보시려면,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재등록하시면, 사무국에서 확인하여 중복으로 후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저서 전자책 보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훈탁한 세상에 밝은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용서는 가장 큰 수행

글 • 법 정(法 頂)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산에서 나오는 일이 무척 머리 무겁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기에 그 무거운 짐을 털어 버리고 왔습니다. 무엇이든 익히기 나름입니다. 익힌 대로 풀립니다. 저는 솔직히 안팎으로 어디에도 매인 데 없이 살고 싶은데, 출가 수행자인 까닭에 늘 시주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물론 이곳에 와서 법문을 한다고 해서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무감에 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므로 할 말도 없습니다. 세상사라는 게 만나서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다녀간 티벳의 스님의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가 시인이라면 종이 안에 떠다니는 구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름이 없으면 비도 없을 것이고, 비가 없으면 나무들은 자라지 못한다. 나무가 없으면 종이를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구름은 종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에 독립된 존재는 없다는 표현입니다.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이를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는 관계를 넘어다보는 것입니다. 한 장의 종이를 통해 가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봅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또 비가 없으면 나무들이 자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가 없으면 종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구름은 종이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독립되어 홀로 존재하는 개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태어나고, 또 그 자식이 짝을 이루어 후세를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존속됩니다. 저마다 독특한 자기 세계를 지니고 그곳에 존재합니다.

나무가 없으면 동물뿐 아니라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도량에 나무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나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쉽니까? 나무는 산소를 만들어 냅니다. 나무를 통해 집을 짓고 종이를 만듭니다. 나무 아래서 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속삭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 아래서 우주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나무만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그렇게 전체 생명계를 받쳐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어느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모두 있을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서양의 인간 중심의 오만한 사고 방식이 오늘날처럼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지구를 황폐화시킵니다. 일찍이 동양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주인이고 모든 사물을 인간에 종속된 물체로 생각하는 발상이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병들게 합니다. 그 결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위협받

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생물의 종이 하루에도 수백 가지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보다 많이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해 수렁에 빠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질 만큼 가졌음에도 성에 차지 않아서, 더 차지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새와 짐승, 물고기 할 것 없이 이 지구상에 있는 종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생물이 다 사라지는데, 이 지구상에서 인간만 달랑 남을 수 있습니까? 인간도 결국 사라집니다. 텔레비전과 냉장고, 가전제품, 자동차, 휴대전화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독립된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주고 받으며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실상입니다. 이

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만났고, 이 절이 생기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에 마음 팔리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상황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집니다. 늘 자기 안에서 찾고,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옛 스님의 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울거니 그르거니 상관 말고
 산이든 물이든 그대로 두라.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세계라.
 흰 구름 걷히면 청산인 것을.
 是是非非都不關 山山水水任自閑
 莫問西天安養國 白雲斷處有青山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될 대로 됩니다. 다

제 길을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은 있을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견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다.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 망상을 쉬면 본래 자기 모습에 드러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지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누가 차갑게 대하면, 나 자신은 그렇게 차갑게 대할 적이 없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지난 봄 정기법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용서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용서를 하셨습니까? 스스로 점검해보십시오. 바쁜 세상에서, 이 좋은 날씨에 무엇하러 절에 옵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 들으려고 절에 옵니까? 귀만 아픕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스스로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최근에 제가 용서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대화집을 읽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저서 중에서도 달라이 라마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홍콩 출신의 중국 사람인 빅터 쉐이 달라이 라마가 아침 명상에 들어갈 때 함께 명상하고, 식사를 할 때나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서 여행을 할 때 동행하며 몇 년 동안 보고 듣고 대화한 용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올가을 숙제로 달라이 라마의 <용서>를 구해 읽으십시오. 용서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남에 대한 용서를 통해 나 자신이 용서받게 됩니다. 또 용서를 통해서 그만큼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용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중국의 티베트 침략 전부터 달라이 라마가 잘 알고 지낸 한 스님이 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자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런데 남아 있던 그

스님은 그만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18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티베트를 비판하라고 강요받으며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스님은 요지부동입니다. 그 후 가까스로 석방되어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탈출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20년 만에 다람살라(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북인도 히말라야 기슭의 도시)에서 그 스님을 만났는데, 옛날의 얼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감옥에서 그토록 고초를 겪었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달라이 라마가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18년 동안 그토록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두려웠던 적은 없습니까?”

그러자 그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 자신이 중국인들을 미워할까 봐, 중국인들에 대한 자비심을 잃게

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나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를 통해 나 자신이 용서받게 됩니다. 또 그만큼 내 그릇이 성숙해집니다. 마음에 박힌 독을 용서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자비와 용서를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하고 묻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땅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땅은 언제나 자비롭고 용서하며 너그럽다.”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지를 어머니에 비유해 ‘어머니 대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럽

거나, 깨끗하거나,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짓밟히거나, 허물어뜨리거나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대지입니다. 땅의 덕입니다. 이런 땅을 딛고 사는 우리는 이와 같은 땅보살에게 수시로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눈을 밖으로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발 뿌리를 늘 살펴야 합니다. 남이 못했든 잘했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이 대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맑고 향기롭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땅의 덕을 배워야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일몰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전에 맺힌 것을 풀어서, 안팎으로 걸림 없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 짐을 다음 생으로 지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그때 청산해야 합니다. 맺힌 것 때문에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날입니다. 무릇 묵은 시간에 갇힌 채 새로운 시간을 등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활짝 열리면 닫혔던 세상의 문도 따라서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 좋은 가을날, 열린 세상에서 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2004년 10월 17일

가을 정기법회

•발췌 : 「일기일회」

날마다 새롭게

글·법 정(法 頂)

우리 둘레는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데 어떻게 좋은 날일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생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도전을 받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력에 의해 의미가 주어진다. 날마다 좋은 날을 맞으려면 모순과 갈등 속에서 삶의 의미를 캐내야 한다. 하루하루를 남의 인생처럼 아무렇게나 살아 버릴 것이 아니라, 내 몫을 새롭고 소중하게 살려야 한다. 되풀이되는 범속한 일상을 새롭게 심화시키는 데서 좋은 날은 이루어진다.

*

산다는 것은 비슷비슷한 되풀이만 같다. 하루 세 끼 먹는 일과 자고 일어나는 동작, 출퇴근의 규칙적인 시간관념 속에서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온다. 때로는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면서, 또는 후회를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노상 그날이 그날 같은 타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시작도 끝도 없이 흘러간다.

이와 같은 반복만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나머지 허락받은 세월을 반납하고서라도 도중에서 뛰어내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안으로 유심히 살

펴보면 결코 그날이 그날일 수 없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또한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란 다행히도 그 자리에 가만히 놓여 있는 가구가 아니며, 앉은 자리에서만 맴돌도록 만들어진 시계 바늘도 아니다. 끝없이 변화하면서 생성되는 것이 생명 현상이므로, 개인의 의지를 담은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

시간은 존재, 어제도 내일도 없는 늘 지금이다. 나는 여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산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 쪽에서 보면 순간순간 죽어오고 있는 것. 그러므로 순간순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짧을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가 아니다.

*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를 죽어야 한다. 삶에 철저할 때는 털끝만치도 죽음 같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일단 죽으면 조금도 삶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사는 것도 내 자신의 일이고 죽음도 또한 내 자신의 일이니, 살 때는 철저히 살고 죽을 때도 또한 철저히 죽을 수 있어야 한다.

꽃은 필 때도 아름다워야겠지만, 질 때도 아름다워야 한다. 모란처럼

똑똑 무너져내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산뜻한 낙화인가. 새잎이 파랗게 돋아나도록 질 줄 모르고 매달려 있는 꽃은 필 때만큼 아름답지가 않다. 생과사를 물을 것 없이, 그때그때의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생사관이다.

*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 쉬고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 보다 높은 가치를 찾아 삶의 의미를 순간순간 다지고 드라마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그러니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피어남이다. 이 탄생의 과정이 멎을 때 잿빛 늪음과 질병과 죽음의 문을 두드린다.

*

먼저 살다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같이, 인생은 짧다고 한다. 어물어물하고 있을 때 인생은 곧 끝나버린다는 것이다. 후딱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곧 끝나버린다는 말이다. 현재의 이 육신을 가지고는 단 한 번 뿐인 인생,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인 우리이다. 그렇다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그것도 팔다리에 기운이 빠지기 전에 각자에게 배당된 그 한정된 시간을 마음껏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기 몫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건 생각이 떠올랐을 때 바로 실행할 일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따로 시절이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다.

*

사람이 산다는 것은 동물적인 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가치를 찾아 삶의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는 바램이다.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과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살아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곧 삶의 내용이고 일거리는 삶의 소재가 된다.

*

우리는 어떤 추상적인 시간이나 공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순간순간 하는 일이 우리들 자신을 형성하고 그런 일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에 맞는 떡이 어디 그리 흔한가. 그렇다면 그 떡에다 입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일을 하면서도 싫어싫어 마지못해 살아가는 시들한 삶이 되고 만다는 데 문제가 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직장에 몸을 담게 되었을까. 무슨 인연으로 들어왔건 이 일터에 몸을 담은 바에야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꽃피우며 불태우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보기 싫은 사람이 몇몇 섞여 있는 것은 이 사바세계의 장식이니 어쩔 수 없고, 내 자신이 남의 눈에 보기 싫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뿐이다.

기왕에 일을 할 바에야 그것이 곧 내 자신의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통해 내 인생을 형성하고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

현재 하는 일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거나 우리가 애초 희망했던 길과는 다른 영역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 그 일을 크게 이룰 수 있고 일과 함께 거듭거듭 사람이 되어간다. 그러니 뒷보다도 우리가 하는 일에 흥미부터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쏟아야 한다. 어떤 일이고 열의를 갖지 않고서는 원만히 해낼 수 없다. 열과 성의를 다한다면 막혔던 길도 저절로 열리게 마련이다.

일을 할 바에야 유쾌하게 하자.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피로도 덜하고, 살아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쁨이 없는 곳에는 삶도 또한 있을 수 없다. 사람과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람이 일 그 자체가 되어 순수하게 몰입하여 지속하고 있는 동안은 자신도 사물도 의식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삼매의 경지다. 이때 잔잔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꽃향기처럼 은은히 배어나온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

사람은 순간순간 목숨을 소모하면서 살아간다.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묘지나 화장터 쪽에서 보면 순간순간 죽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순간순간 사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일을 할 줄을 알아야 하듯이 쉬고 놀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문제는 곧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모처럼 쉬면서 놀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도 참으로 쉴 줄을 모르기 때문에 녹슨 문명의 덫에 걸려 무의미하게 흩어버리는 수가 많다.

제대로 쉬려면 우선 일상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피곤한 문명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까맣게 잊어버린 청정한 자연의 품에 안겨보라. 마음을 텅 비우고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 꽃향기도 맡아보고 흘러가는 구름에 눈을 맞추어보라. 맨발로 부드러운 발흙을 감촉해보고 흙을 매만지며 그 향기도 맡아볼 수 있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새소리나 시냇물소리에 귀를 모으고 숲길을 거닐어보고 바닷가 모래톱에서 조개껍질이라도 주워보자. 팔베개를 하고 밤하늘의 별을 세며 동요도 불러보자.

이렇게 하는 동안 시들었던 인간의 틀이 조금씩 소생하고 일찍이 느끼지 못한 잔잔한 평화와 창조적인 의욕이 꿈틀거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못사는 것은 경제적인 빈곤에만 그 원인이 있지 않다. 살 줄을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 휴식의 진짜 맛은 땀 흘려 일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명심하면서.

*

사람이 사는 일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끝없는 개선과 창조의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물의 생존이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변화를 통해서 사람은 거듭거듭 형성되어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착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 노정(路程)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노정이라면, 뚜렷한 방향이 설정되

어야 합니다.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허둥대게 마련입니다.

*

우리가 지금까지 저마다 살아온 자취를 한번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웃거릴 데 안 기웃거릴 데,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리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이 방황해왔습니까. 이 바람에 이리 쓸리고, 저 바람에 저리 쓸리면서 타율적인 삶을 되풀이해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도 자주적인 삶을 이루지 못하고 누구에게든 떠밀려서 또는 무엇에 휩쓸려 살았던 날들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으로서 세워야 할 뚜렷한 삶의 목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를 불교적인 말로 바꾸면 원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소망이면서도 욕심과 원은 다릅니다. 욕심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요, 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은 나만이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덕을 입히는 이타적인 소망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자기 처지에서 갖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자기 한 사람이나 가족의 단위에 그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내 이웃과 사회에 널리 펼쳐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청정한 원이 됩니다. 원은 이렇듯 만인이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작용입니다.

*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일이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

이 자신에게 자신을 만들어준다. 이 창조의 노력이 맺을 때 나무건 사람이건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온다.

겉으로 보기에 나무들은 표정을 잃은 채 덩덤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안으로 잠시도 창조의 일손을 멈추지 않는다. 땅의 은밀한 말썸에 귀 기울이면서 새봄의 싹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다가 시절인연이 오면 안으로 다스리던 생명력을 대지 위해 활짝 펼쳐 보일 것이다.

*

사람이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길이 있다. 저마다 특성과 기능과 소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기능과 능률만이 중시되는 산업사회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다. 일(作業)과 시간에 쫓기면서 정신없이 어디론가 내몰리고 있다. 옛날의 농부와 수공업자들은 그 일 자체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일에 쫓기지 않고 그 일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니 제정신을 잃지 않고 삶에 여유와 운치를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오늘날보다는 가진 것이 적고 아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사람답게 사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

저녁노을은 마지막 악장(樂章)이 끝나고 난 후의 적막 같은 것. 그 적막 위에 지나간 가락이 되살아난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취가 노을에 떠오른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고되고 바쁠지라도 더러는 저녁노을에 눈을 돌려 볼 일이다. 줄곧 밖으로만 걸돌던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런 시각에 안으

로 거두어들여야 한다. 이런 내적 수습이 없다면 지위를 막론하고, 소유의 많고 적음을 물을 것 없이 우리들의 삶은 항시 모순과 불안과 갈등으로 얼룩지게 될 것이다.

*

진실로 삶은 놀라움이요, 신비다. 인생만이 삶이 아니라 새와 꽃들, 나무와 강물, 별과 바람, 흙과 돌, 이 모두가 삶이다. 우주 전체의 조화가 곧 삶이요, 생명의 신비다. 삶은 참으로 기막히게 아름다운 것. 누가 이런 삶을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그 어떤 제도가 이 생명의 신비를 억압할 수 있단 말인가.

*

사람에게 탐구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속물이 되고 만다. 하루하루 사는 일이 그저 그런 날의 연속이라면 삶 자체가 시들해지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의 의미와 그 고마움을 놓치고 만다. 탐구하는 노력을 통해서 삶의 질을 얼마든지 높여갈 수 있고, 그때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

범속한 일상생활에 대한 자각은 자기 자신의 뿌리를 살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없어도 좋을 비본질적인 것가치들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지금까지 얽혀

온 집착의 가지는 질긴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생나무 가지를 찢는 아픔쯤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물론 일상성 밖에 우리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상성에 긍정적인 의미가 주어지려면 심화(深化)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화는 곧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매듭입니다. 그 매듭은 누가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본래적인 나로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벗어난 순수한 '나'를 일단 객관화 시켜야 합니다.

*

사람은 결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순간 순간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못살아도 먼 후일에 가서 잘사는 것을 뜻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삶의 보람을 누리면서 사는 데 그 의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조차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개성과 취향이 다르듯이, 살아가는 데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무슨 일에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

나의 인생은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연소. 때문에 모방과 추종을 떠나 내 나름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자기 신념의 설정이 있어야 한다. 흐린 곳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고 항상 둘레를 환히 비추는 연꽃의 생태, 이것을 한적한 곳에서 안일해지려는 내 일상의 교훈으로 삼고 싶다.

*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에 종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건 간에 자기 삶 속에 꽃을 피우고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사는 일이 무료하고 지겹고 시들해지고 만다.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두고 딴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일 뿐.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지금 바로 그 자리가 자기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

해가 바뀌면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 육신의 나이를 하나씩 더 보태게 된다. 어린이나 젊은이는 나이가 하나씩 늘어가는 것이고, 한창때를 지난 사람들에게는 한 해씩 빠져나가는 일이 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자연현상이다. 빠져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고 허무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을 순간순간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지난날 과로나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 병이 들었을 경우, 그걸 운명이나 숙명으로 돌린 나머지 좌절하고 만다면 그 병은 나올 기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병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 과로에서 온 피로를 풀고 무절제한 생활을 청산, 절제된 새로운 생활습관을 꾸준히 익힌다면 다시 건강한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사는 일은 자기 생애의 소모인 동시에, 새로운 자신을 형성하고 실현하는 일로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한 자기 삶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그런 존재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하고 형성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사람은 원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 원이란 더 말할 것도 없이 삶의 지표다. 삶에 뚜렷한 지표가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 부딪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지혜와 용기가 생긴다. 욕심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지만, 원은 나와 남이 함께 추구하고 누리는 사회적인 희망이요 복지다.

*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그렇고, 수도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마치 장애물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고비 넘어서면 또 한고비가 나타나고, 그 고비를 어렵게 넘어서기가 무섭게 또 다른 장애물

앞에 마주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장애물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고 삶의 소재일 수 있다.

그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극복하고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삶의 성패가 달린 것이다. 어차피 사람은 어떤 소재를 통해서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분수를 알고 지키는 일이 삶의 과제로 제기된다.

*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 시간과 건강을 보다 값있는 일에 쓰고 있다면 그 삶은 노소간에 창조적인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찾을 길 없는 소중한 시간과 건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부질없는 일에 탕진하고 있다면 그 인생 자체가 소모요, 타락이 아니겠는가.

*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는다면 불쾌했던 일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지나쳐버리려고 한다. 불쾌한 일들에 천착하면 현재의 삶에까지 그 불쾌감이 묻어오기 때문이다. 일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현재의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치 부여를 할 수 없을 때 나는 선뜻 털고 일어선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일단 지나가버린 일들에 매달리면 현재의 삶이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게 이중의 피해를 가져오

게 된다. 나는 오늘을 살고 싶다. 현재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고 싶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산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다. 언제 어디서건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

우리가 제 명대로 살다가 가려면, 자기 나름의 투철한 삶의 질서를 가지고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삶의 양식이 다르므로 남의 장단에 놀아나지 말고 자기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자주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왕에 살 바에는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즐거움에 넘치는 심장이 가장 좋은 약이다.

어려운 일에 부딪칠수록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 자신의 새로운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이란 끝없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전에는 응전으로 극복하면서 거뜨거뜨 자기 형성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을 전개해나간다면, 세상은 그렇게 고해만이 아니고 살아갈 만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

*

언제부터인지 꽃이 지는 걸 보고 있으면 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꽃이 지는 모습도 나무마다 다르다. 옥매화나 개나리처럼 새잎이 파랗게 돌아날 때까지도 지지 않고 누렇게 빛이 바래가면서 매달려 있는 걸 보면 차라리 측은한 생각이 든다. 필 만큼 피었으면 잎이나

열매한테 선뜻 자리를 내줄 일이지, 어찌자고 저렇듯 추한 꼴을 보이면서 내려올 줄을 모를까. 우주 질서 앞에 마치 양탈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민망스럽다.

그러나 모란과 설토화 같은 꽃은 질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우수수 무너져 내린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인 자기 분수를 알아 깨끗이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시원스런 거취가 대장부의 기상처럼 느껴진다.

태어난 사람인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마련이다. 이 죽음은 권력도 금력도 남녀노소도 신분의 높낮음도 가리지 않는다. 생을 끝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생을 시작하기 위해 묵은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꽃과 잎이 다시 뿌리로 돌아가듯이.

묵은 껍질을 벗어버릴 바에는 미련 없이 훌훌 벗어버려야지 비굴하게 애걸복걸 매달려서는 안 된다. 매달려 보았자 하루 이틀이지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

살 때는 삶에 철저하여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하여 그 전부를 죽어야 한다. 삶에 철저할 때는 털끝만치도 죽음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또한 죽음에 당해서는 조금도 생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살 때에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죽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다.

사는 것도 내 자신의 일이고 죽음도 내 자신의 일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은 전력을 기울여 빠르하게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미련 없이 신속하게

물러나야 한다.

그때그때의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禪의 특색은 이와 같이 현재를 최대한으로 사는 데에 있다. 생과 사에 철저할 때 윤회의 고통 같은 것은 발붙일 틈이 없다.

*

사람은 순간순간 목숨을 소모하면서 살아간다.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묘지나 화장터 쪽에서 보면 순간순간 죽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순간순간 사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일을 할 줄을 알아야 하듯이 쉬고 놀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문제는 곧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모처럼 쉬면서 놀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도 참으로 실 줄을 모르기 때문에 녹슨 문명의 탓에 걸려 무의미하게 흩어버리는 수가 많다.

*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사람은 또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하고 무도無道할 것인가. 죽음이 없다면 생 또한 없을 것이다. 죽음이 우리들의 생을 조명해주기 때문에 보다 빛나고 값진 생을 가지려고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

글 • 변택주

“나는 이곳에 와 지내면서 새삼스레 죽음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삶과 무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연소요, 소모이므로 순간순간 죽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란 삶 끝이 아니라 다음 생 시작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나는, 평소부터 죽음의 의례적인 번거로운 의식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럿이 사는 절에서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이웃들에게 내 벗어 버린 껍데기로 인해 폐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버리고 떠나기〉 ‘달 같은 해 해 같은 달’에서

법정 스님은 늘 위와 같은 말씀을 자주 꺼내신다. 예지 능력을 가진 코끼리가 죽음이 임박해 오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밀림으로 들어가 조용히 삶을 마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싶다고, 아울러 스님들 장례에서 사리 따위를 줍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면서 그 부질없음을 늘 지적하신다. 스님은 죽음은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승용차를 바꿔 타거나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일이니 굳이 번거로움을 떨 필요가 없다고 하신다. 하지만 우리 같은 범부들은 죽음이 그렇게 단순하게 느껴지지만

않는다. 우리에게 죽음은 그저 관념 속에 자리한 일처럼 실감이 썩 가지 않는다.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할까?

앞서 간 이들 입을 통해서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100년을 살다가 스스로 곡기를 끊어 죽음을 맞은 스콧 니어링 아내 헬렌 니어링은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서 죽음을 이렇게 말한다.

“늙음은 땅과 죽음 사이에서 순환하는 삶 내리막길을 가는 것, 나는 몸에서 떨어져서 정박 밧줄을 느슨하게 하고, 미지 세계로 건너가 더 이상 분리 되지 않는 필연 존재인 ‘전체’와 하나가 되고 싶다. 스콧 죽음은 내게 훌륭한 길, 훌륭한 죽음을 보여주었다. 고통과 억압이 없는 죽음, 여전히 생명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나는 이제 분명히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으며, 더 이상 예전에 쉽게 그랬듯이 힘 있게 오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걱정 없는 행복한 여행객이었으며, 이제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모퉁이 돌면 끝이다.

죽음 없는 삶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영원한 삶, 죽음과 소멸은 모두를 하나로 만든다. 관계를 뒤엎는다. 저마다 아들의, 아들의 아들들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은 모두 영속하는 것이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과 섞이는 것이다!”

미지 세계로 건너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필연 존재인 ‘전체’와 하나가 되고 싶다는 헬렌 니어링은 죽음을 이제껏 존재했던 조상들과 섞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은 친구 차례지만 이다음은 바로 우리들 자신 차례임을 알아야 한다. 친지 죽음은 곧 우리 자신 한 부분 죽음을 뜻한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 매듭이기 때문에 더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도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은 그럴만한 시간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에 직결 되어 있다.”

법정 스님 말씀이다.

죽음 그 뒤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목숨을 가진 모든 목숨붙이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돌레 가까운 이들 죽음을 맞기 전에는 죽음은 그저 신문에 보도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러다 가까운 사람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죽음을 맞고 나서야 우리는 참으로 죽음과 맞서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뻗속 깊이 실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이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아프리카 스와힐리족은 두 가지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 하나는 사사SASA 시간이고, 또 하나는 자마니ZAMANI 시간이다. 그들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비록 그 몸은 죽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한, 그는 사사 시간에 살아 있다고 여긴다. 기억되는 한 살아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마저 다 죽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풀려나 영원한 침묵 시간, 자마니로 들어간다고 말한다.

결국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커다란 생명 응집이다. 내 몸뚱이 하나에는 조상 대대로 숨결과 귀적이 기억이라는 유전자에 새겨 있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삶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 자체가 내 아버지 기억이고 내 어머니 기억이며, 내 존재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 존재 증명이듯이, 내 자식이란 존재가 또한 내 존재 증명이다. 우리는 그걸 대를 이어간다고 말한다. 좋은 인생이란 좋은 기억을 남기는 일인지도 모른다. 대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좋은 기억이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경영 나침반이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열세 살 나이에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화두와 부딪친다.

스승이었던 필리글러 신부가 남긴 말이다.

“너희 나이가 50이 되어서도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나를 대답이 나오지 않고 그 의미가 잡히지 않는다면, 그 인생 헛산 줄 알아라.”

이 물음은 이제 우리 물음이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 될 것인가?”

변택주· 아둔하고 미욱한 탓에 좀 슬기로워지라고 법정 스님께서 지광(智光)이란 법명을 지어주셨다. 1998년부터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고 길상사 법회 진행을 맡았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책을 읽고 뜻을 나누고자, 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되면 ‘꼬마평화도서관’을 열기 위해 나라 곳곳을 다니고 있다.

관음심 관음행

글 • 고 현

맑고 향기롭게 광주 전남 모임은 부산, 대구 영남지역 모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출한 살림이다. 그러나 가족은 빈약하지만 숨은 보살행을 실천하는 관음행觀音行들이 많다 보니 진정한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뜨겁게 체험 하곤 한다.

우리가 하는 몇 가지 일 중에 70세 이상의 지체부자유 독거노인을 위해 매일같이 도시락 1백 개씩을 만든다. 자원활동자 20여 명이 일주일에 하루씩 평균 3, 4명씩 팀을 짜서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자원활동을 나온 보살들 중에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일을 못한 관계로 병원 간병인 일을 나가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도와주는 보살, 도시락을 3년 째 받고 있는 친정 어머니 부탁을 받고 그 고마움 때문에 나와주는 세탁소 보살,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두 딸을 어렵게 키우면서도 야무지게 살아가는 그런 보살님도 계신다. 그런가 하면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교수 사모님도 계시고, 초등학교 교감으로 퇴직하신 전직 선생님도 나오신다. 어떤 분은 나오신 지 두 달, 또 어떤 분은 3년이 넘은 관음행도 있으며,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한 10년도 나오겠다고 다짐한 보살도 계신다.

또 전혀 다르게 도와주는 관음심(觀音心)들도 있다. 새벽 수산물 어판장에서 경매가 끝나고 나면 상처 난 고등어, 토막 난 갈치, 입이 벌어진 어패류 등 이미 상품 가치는 상실했지만 쓰일 곳이 있겠느냐고 문의해준 고마운 분이 있다. 또 전남 무안에서는 무 배추 농사를 도시 상인들에게 차떼기로 넘기고 나면 부실한 채소나 양파들이 그대로 밭에 남아 있는데 그런 것도 쓰일 곳이 있겠느냐는 전화도 온다. 전남 장성에서 정미업을 하는 어떤 처사님은 나락을 도정하고 나면 정곡은 종이부대에 자동으로 담겨 출하되지만, 깨진 싸라기나 부실한 알곡들은 별도로 정리되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느냐고 문의했다.

이 밖에도 광주, 나주, 남원, 영암, 강진, 곡성 등 여러 사암(寺庵)에서 스님들로부터 연락이 오기도 한다.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올리는 정성스러운 공양미를 몇 달씩 모았다가 몇 년째 주기적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스님들도 계신다. 비록 토막 난 생선이라도 조림이나 튀김을 하면 훌륭한 고단백 반찬이 된다. 부실한 채소는 끓는 물에 데친 후 된장과 기름에 무치면 맛깔난 나물이 되고, 깨지고 부실한 싸라기도 방앗간에 가지고 가 떡을 만들면 노인들 명절거리로 훌륭하게 쓰인다.

마음이 움직이면 손발이 따라오는 진리, 관음심에 관음행을 보태면 못 할 것이 없음을 새삼스럽게 체득한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도와준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정품을 주지 못하고 부실한 것들만 주게 되어 도와주면서도 한결같이 미안해한다는 것. 둘째, 언론에 기사화시키거나 감사패라도 드리겠다. 하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럼 관계를 끊겠다'고 펄펄

핀다는 점. 셋째, 스님께서는 늘 무소유를 말씀하시지만 도와준 분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지닌 '소유'는 결코 짐이 될 것 같지 않은 서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은 전국 회원 연수 때 '현장체험 사례'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더니 여기저기서 손수건을 꺼내 들거나 훌쩍거리는 회원들도 있었다. 지부마다 발표가 끝나자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하셨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을 나눌 때 물질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음심 관음행들이 있기에 이 사회는 아직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받쳐주고 있는 것은 머리 좋은 정치가나 돈 많은 재벌들보다도 바로 우리 이웃에 숨어서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는 서민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마이너리티들, 굶주린 자, 병든 자, 장애우, 새터민, 고독자, 이방인들이 더 이상 배격, 차별, 격리,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 사회가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정답으로 인식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모임이 할 일이 없어져버릴 때까지,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는 계속될 것이다.

고현·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우천(又泉)이란 수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불자의 삶을 살고 있다.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라는 화두를 안고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러스트, 단청, 탕화, 디자인 등 국내외에 발표한 200여 회의 작품이 모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디자인 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광주·전남모임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며,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리커 매뉴얼 북 연구를 통하여 모든 디자인 작업을 체계화 하였다.

살아 있음의 의미

글·법 정(法 頂)

또 가을!

때가 되면 철새들도 그 옛 깃을 찾아 날아든다는데, 아쉽게도 산승은 철새의 생리를 날로 벗어나고 있단다.

들어 알았겠지만 지난 이른 봄에 이곳 통도사로 옮겨 왔었다. 까닭은 <불교사전>을 편찬하는 데 도와 달라는 청을 받고, 지금까지 다른 세 스님과 함께 원고 정리에 여념이 없었지.

얼마 전에 원고는 탈고되어 지금은 그 교정을 보고 있다.

수일 안으로 서울에 가서 초판, 인쇄에 착수할 것 같다.

그새 광주의 광순하곤 더러 서신의 왕래가 있었을 뿐이야.

지금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의 무표정한 직업인이 된다는 것이다.

해서 나는 초연한 수도승이기보다는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진리를 모색하는 철학도가 되고 싶을 뿐이다.

불교 중에서도 종교적인 면은 나를 질식케 하지만 철학의 영역만은 나를 언제까지고 젊게 하고 있지.

물론 사회인에겐 살아가는 데 직업이 필요할밖에.

하지만 인간 본래의 양심이라든가 의지를 잃어버리고까지 거기에 얽매 일 건 없을 줄 안다.

어쩌면 이 말은 빵의 존엄성을 모르는 철부지의 말일지도 모른다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린 생존만으론 살고 있는 보람이 없어. 즐기찬 생활이, 창조적인 생활이 있어야 해.

한자리하여 요즘의 모습들을 보고도 싶은 마음이지만, 이 사전 일 때문에 가을엔 겨를이 없겠군.

너의 생애에서 중대한 지점이 부딪쳤을 때는(가령 결혼이라든가 그 밖에도) 광순 형과 의논하여 주었으면 싶어. 그는 좋은 형님 노릇을 해 줄 거야. 가끔 서신으로라도 인사를 잊지 말어.

성남이, 순효 모두 잘 있겠지. 아듀

1960년 10월 21일

산승 법정 합장

* 발췌 :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 책읽는섬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는 법정 스님이 출가 직후 사촌동생인 박성직에게 보내 온 편지를 묶은 것이다. 박성직은 어린 시절 한집에서 같은 방을 쓰며 친형제처럼 자랐다. '나 대신 네가 아들 노릇 해 달라'는 스님의 부탁을 받들어 결혼한 뒤에도 법정 스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 편지는 청년 박재철이 승려 법정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 생각하라

글 • 김옥림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로 떠오른다 - 법정 -

우리는 대개 무엇이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다. 나아가 어떻게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풍요로운 물질과 문명의 발전은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그러다 보니 앞만 보고 달릴 뿐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무엇이 되느냐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좋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결국 풍요롭고 넘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공식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삶을 살되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민이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무엇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하는 보편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국민작가 레프 톨스토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물음에 대한 답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 그는 명문 귀족의 자손으로 많은 부를 가졌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스스로 풍요로운 삶을 포기했던 것이다.

생각하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김옥림· 시와 소설, 에세이, 동화, 동시, 교양, 인문,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다. 20년 넘게 YWCA, 도서관, 평생교육정보관, 여성회관 등 각 기관단체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하는 한편, 어린이 글쓰기교실인 '초우서원'을 창립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동시와 동화 등 글쓰기 지도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향에 돌아와

글 • 휴정 선사

삼십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니
사람은 죽고 집은 허물어져
마음이 황량하게 변해버렸다
청산은 말이 없고 봄 하늘 저문데
두견새 한소리 아득히 들려온다
한 때의 동네 아이들
창구멍으로 나그네를 엿보고
백발의 이웃 노인
내 이름을 묻는다
어릴 적 이름 알자
서로 눈물짓나니
푸른 하늘 바다 같고
달은 삼경이어라



• 발췌 : 「버리고 떠나기」 개울가에서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맑고 향기로운 가게(불교문화용품 판매점) 운영 및 맑고 향기롭게 문화 상품 개발의 필요성

길상사내 불교문화용품 판매점인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회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취지를 더욱더 알리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운동을 우리의 자산인 '심플과 로고'가 실린 불교문화상품으로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다양한 재능기부와 참여를 바라며,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 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주실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 460여 가구에 밑반찬 2가지(매주 목, 금요일)와, 김치(3월-10월 둘째 목요일)를 지원하고,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방지를 위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조리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 중입니다. 요양원과 상의하여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활동이 잠정 중단중입니다. 센터와 상의하여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본모임은 맑고 향기롭게 근분도량 길상사에서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활동이 진행되오니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8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4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4일(화), 18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조리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면 봉사자와 상의하여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

단중입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시~5시/세계일화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 숲기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CMS, 계좌입금)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전삼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은 2층을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매월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월중 수시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3층 서로배움터에서 참선 및 작은 임제록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제록 이후 금강경수업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회원, 봉사자분들, 그 외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 신 모든 도반님들을 환영합니다.

* 시간: 매주 화, 금 오후2시

* 교재: 무비스님의 작은 임제록

• 법정 스님 책읽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 기도	8월 1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보름 기도	8월 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8월 7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8월 1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8월 1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칠석기도	8월 2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9시 50분/ 저녁 7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청년회법회, 중·고등법회, 어린이법회, 새신도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백중 아미타기도 입재 및 하안거 결제

- 장소 : 극락전

- 3재 : 8월 5일
- 4재 : 8월 12일
- 5재 : 8월 19일 / 반려동물을 위한 조축
- 6재 : 8월 26일
- 막재 : 9월 2일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영가 지웃 접수 받습니다. 종무소에서 접수 후, 영단 옆 마련된 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영가 지웃은 막재 때 소전 해드립니다.

2021년 수능 입시기도 안내

- 입재 : 8월 26일(수) 오후 2시
- 회향 : 12월 3일(목)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15만 원(합동천도재 포함)
- 수능기도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설판재자는 매일 주지 스님께서 축원해 드립니다.

불기 2564(2020)년 가사불사모연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불기 2564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경자년 하안거 백중기도 기간에 승보공양의 하나인 가사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사불사는 부처님 당시부터 행해져 온 것으로 재가자가 출가자에게 올리는 음식(飮食), 의복(衣服), 와구(臥具), 의약(醫藥)의 네가지 공양(四事供養) 가운데 하나인 의복을 지어드린 데에서 유래합니다.

가사란, 출가수행자가 입는 세 종류의 의복(三衣, 요즈음의 1.속옷 2.평상복 3.외출복 겸 예식복에 해당합니다)을 총칭하는 말로서 부처님 당시에 버려진 천의 조각들을 기우고 괴색으로 물들임으로써 사치와 향락을 버렸다는 의미에서 분소의(糞掃衣)라 하였으며, 다른 이름으로 염의(染衣), 인욕의(忍辱衣), 법의(法衣), 복전의(福田衣), 공덕의(功德衣), 무구의(無垢衣), 해탈복, 자비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서는 <현우경> 제 13권에서 “염의(染衣)를 착용하는 사람은 일체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며, 불도(佛道)를 성취하게 된다.”라고 설하셨고, <대승본생십지관경>에서는 출가한 보살이 법의(法衣)를 지님으로써 얻게 되는 10가지 수승한 이익을 낱알이 설하고 있으며, 기타 수많은 불교경론에서도 가사가 지니는 무량한 공덕과 위덕에 대하여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스님들께 의(衣) 공양을 올리는 인연은 신성하고 지중한 공덕입니다.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 중에 으뜸인 가사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이 신심과 원력으로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지으시기를 발원합니다.

-  회 향: 불기 2564(2020)년 9월 2일(백중)기도 회향 시
-  동참금: 십시일반(5만 원 이상 가사불사 축원을 해 드립니다)
-  문의 및 접수: 길상사 동무소 02)3672-5945



법정 스님 수행처 사진 공모전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 문화 사업으로
법정 스님의 대표적인 수행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

- 법정 스님 고향 마을
(전라남도 해남 우수영)
- 경남 통영 미륵산 미래사
- 경남 하동 지리산 쟁계사
- 경남 양산 영축산 통도사
-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
- 서울 강남 수도산 봉은사
- 전남 순천 조계산 송광사 & 불일암
- 서울 삼각산 길상사

中에서
기도 정진하는 모습,
지혜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모습,
고즈넉한 산사의 아름다운 풍경,
사찰 전통 건축양식 및
자연 경관상 아름다운 모습 등
널리 알릴 수 있는
주제에 적합한 작품 사진

- 접수기간 : 2020년 8월 1일 ~ 8월 20일 까지
- 접수방법
 -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
 -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과 함께 접수기간에 맞춰 이메일로 접수
 - clean94@hanmail.net / 1인 3작품 이내
- 출품규격
 - 디지털 사진(JPG 이미지파일)으로 최소 1,000만 화소 이상/3MB 이상
 - 필름 사진은 스캔 후 응모 가능)
-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 9월 중 (차후 공지)
- 시상 내용

종류	인원	상금액
대상	1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2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3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6	상장 및 상금 20만원
입선	20	상품권 5만원, 법정스님 사진첩

※ 시상인원은 응모작품수 및 작품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